DBpia

권두언

저자 (Authors)	김창남
출처 (Source)	대중음악 , 2013.11, 5-8 (4 pages) Koren Journal of Popular Music , 2013.11, 5-8 (4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대중음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opular Music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339332
APA Style	김창남 (2013). 권두언. 대중음악, 5-8.
이용정보 (Accessed)	연세대학교 165.***.14.104 2018/04/12 19:3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대중음악
한국대중음악학회, 통권 12호

권두언

김창남(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문화대학원 교수,
한국대중음악학회 회장)

얼마 전 “K-POP의 특정 장르(아이돌) 편중 현황과 대책”이란 제목의 국정 감사 자료집이 발표되었다. 이 자료집은 가온차트의 2012년 결산 결과를 인용해 한국 음악시장에서 아이돌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2퍼센트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밖에 팝이 8퍼센트, OST가 5퍼센트, 힙합, 록, 포크 등 다른 장르들은 1퍼센트 이하에 머물고 있다. 한국 대중음악시장의 장르 편중 현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거듭 지적되어온 것으로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통계 지표를 대하니 그 양극화의 정도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이 자료집에 따르면, 미국 빌보드차트의 경우, 팝 31퍼센트, 록 26퍼센트, 힙합과 컨트리가 각각 13퍼센트로 고른 분포를 보였고 일본 오리콘차트에서는 팝 35퍼센트, 아이돌 35퍼센트, 록 20퍼센트 정도라니 한국 시장의 불균형은 가히 참혹할 정도로 기형적이다. 이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이와 같은 편중현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채널 시대가 열리면서 값싸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능 자원이 필요했던 방송사와, TV라는 강력한 홍보매체가 필요했던 아이돌 기획사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방송 프로그램들이 아이돌 위주의 예능으로 흐른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04/12 19:38(KST)

게 주요한 원인이다(http://tenasia.hankyung.com/archives/179763 기사 참조).

대중음악시장의 장르 편중 현상은 그저 시장의 불균형으로 그치지 않는다. 시장의 불균형은 대중이 향유하는 문화 환경의 편향과 왜곡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인간의 창의성이니 창조성이니 하는 것은 결국 보고 듣고 느끼는 문화적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문화적 경험이 지극히 편향되고 왜곡되어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창의성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이돌 음악을 중심으로 한 K-Pop 한류 열풍을 그저 좋게만 보기 어려운 까닭이 여기에 있다. 대중의 창의적 역량이 제한적일 때 문화적 창의성이건 혹은 이른바 '창조 경제'건 발전하기도 지속가능하기도 어려운 건 당연한 일이다. 다양성의 회복,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성, 시장논리의 강압에서 자유로운 문화적 공공성의 확립 같은 가치가 다시 한 번 소중해 지는 건 그 때문이다.

한국대중음악학회의 학술저널 『대중음악』이 12호를 맞는다. 이번 호에는 모두 다섯 편의 글이 실린다. 저널을 낼 때마다 느끼지만 대중음악이란 주제의 스펙트럼은 대단히 넓다. 그것은 경제의 문제이며 정치의 문제이고, 일상의 대상이자 교육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번 호에 실리는 다섯 편의 글은 대중음악을 둘러싼 담론 지형의 폭과 깊이, 그리고 대중음악이 가지는 폭넓은 삶의 연관성을 확인하게 해준다.

김병오의 글은 최근 음악산업의 가장 민감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스탑덤핑뮤직운동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음악시장이 디지털과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음악 유통방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적정한 수익배분 구조의 확립은 대단히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가 되었다. 스탑덤핑뮤직운동은 유통사의 일방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현재의 정액제를 폐지하고 종량제를 실시하여 제작자들이 시장 가격을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04/12 19:38(KST)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핵심으로 주류와 비주류의 제작자들이 연대해 벌이고 있는 운동이다. 김병오의 글은 해외 사례와 통계 지표를 동원해 이 운동의 핵심 주장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논쟁적이다. 특히 이 문제를 단기적 이해관계의 관점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음악 생태계의 비전이란 차원에서 볼 것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다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김미순의 글은 흔히 버스킹이라 불리는 길거리 음악을 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신선하고 이채롭다. 보통 길거리 음악은 아마추어의 소규모 공연행위 정도로 취급되었지만 그는 길거리 음악이 주류적 시스템을 벗어나 고유한 자기 영역을 만들어내는 전복성과 창조성에 주목한다. 길거리라는 일상의 공간은 새로운 문화적 잠재력을 가진 예술적 창조성의 공간이다. 이 새로운 마당은 생산과 소비의 방식에서 주류의 시스템과 구별될 뿐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창조적으로 결합한 생비자들에 의해 새로운 쌍방향 소통의 체계를 구현할 문화적 잠재력의 공간이다. 실제 길거리 공연을 하는 독립음악인들을 대상으로 한 김미순의 사례연구는 주로 기성의 시스템에서 소비되는 음악만을 대상으로 사고했던 대중음악 연구의 스펙트럼을 한 발짝 넓히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주목에 값한다.

원재웅, 이정선 두 분의 글은 현재 여러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실용음악 교육 과정의 현황과 문제를 살피고 있다. 1980년대 말 서울예대에 실용음악전공이 개설된 이후 전국적으로 수많은 유사 학과가 생겨났고 이들 상당수가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교육과정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중음악 교육에 제대로 기여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정선 선생은 한국에서 대중음악 관련 학과가 생겨나고 변화해 온 역사를 정리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04/12 19:38(KST)

한다. 원재웅 선생은 실용음악과에서도 특히 인기가 높은 보컬 분야의 현재 상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실용음악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한다. 대학의 실용음악 교육이 20년을 훌쩍 넘기는 동안 대중음악 교육의 방향이나 방법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래 동안 실용음악 교육 현장에 몸 담아온 두 분의 글은 매우 시의적절한 문제제기라 할 만하다.

대중음악평론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차우진은 다큐멘터리 〈아이엠〉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의 프로덕션 작동 방식을 분석한 평론을 기고했다. 잘 알려진 대로 SM은 한국의 아이돌 시스템과 K-Pop 한류를 주도하고 있는 막강한 기획사다. SM의 전략이 변화하고 새로운 아이돌 상품이 등장할 때마다 한국 대중음악 씬은 출렁이고 K-Pop의 흐름도 영향을 받는다. 현재 한국 대중음악 문화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대중음악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돌 팝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 대한 좀 더 정세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아이돌 음악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에 주목한 차우진의 글이 흥미로운 까닭이다.

반년간 학술지 『대중음악』은 한국대중음악학회에서 내는 학술저널이다. 학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배포되지만 참여의 문호는 언제나 열려 있다. 대중음악에 대한 진지한 사유를 담은 글이라면 언제든 환영한다. 또 학술지이지만 인터넷 서점 등 시중의 도서 유통망을 통해 누구든 구매할 수 있다. 관심 있는 분들의 기고와 열독을 당부드린다. 좋은 글을 주신 필자들과 책을 펴내주시는 도서출판 한울의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2013년 11월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04/12 19:38(KST)